https://doi.org/10.14400/JDC.2017.15.8.383

문화예술분야의 진로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정재엽*, 최명길**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Study on the Factors of Career Choice in Culture Arts

Jae-Yeob Jeong*, Myeonggil Choi**
Dept.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ersity*
Dept. of Business, Chung 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문화예술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로선택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또한 진로선택의 요인과 진로장벽으로의 외부환경요인이 취업자와 창업자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는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는지 연구하였다.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33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t-test,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전공자의 진로선택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취창업 선택 시 고려하는 진로선택요인을 서열 순으로 확인하였다.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취창업그룹간, 성별간에 진로선택요인의 차이가 있었으며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일부 요인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문화예술분야 전공자의 진로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 향후 진로교육과 상담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하며 취창업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

주제어 : 문화예술, 진로선택요인, 외부환경, 취업, 창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tives of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for culture and arts major.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factors of career choice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areer barri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ture and arts in Gyeonggi Province. For 233 copies, t-test and MANOVA analyzes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career choice factors of culture and art major were researched in order of importance.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areer choice factors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entrepreneur and between the genders. There wa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hoice groups and the gender in som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in the future by enhancing understanding of career choice of major in culture and arts field.

Key Words : Culture and Arts, Career Choice Factors, External Environment, Employment, Entrepreneurship

1. 서론

2015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평균 연봉은 연 1300만원이하이며 중앙값이 300만원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을 전업하고 있는 예술

* 본 논문은 2016년 예원예술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30 June 2017, Revised 1 August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Myeonggil Choi
(Dept. of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Email: mgchoi@ca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은 50%정도이며 겸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 중 80%는 소득의 문제 때문에 예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여서 취업률은 29.8%이며, 신규구직 대비 신규구인비율은 26% 수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전업 문화예술인 중 약 79%가 프리랜서 및 기업의 고용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보면 문화예술인의 약 40%가 자기 고용 상태로 창업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1]. 문화예술 진로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 전공자들은 취업과 창업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활동과 예술적 활동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며 노동시장의 수요부족 등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 전공자들에게 진로선택의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전공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선택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어떠한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선택의 요인과 진로장벽으로의 외부환경에 대해 취업자와 창업자에 따라 다르게 인지하는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지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전공자의 취창업 선택요인 인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규명함으로서 문화예술 전공자에 대한 진로선택 교육과 문화예술 전공자의 취창업 진로선택에 대해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인지 진로이론

진로이론에서는 개인 특성과 환경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진로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본다[2].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과 외적 환경요인은 개인의 진로 선택행동에 영향을 준다[3]. 이 이론은 Bandura [4]의 사회인지론 기반으로 하며 3가지 원인 모델(triadic reciprocal model)을 응용한다. 즉, 개인적 속성, 외적·환경적요인들, 외현행동의 3가지 축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자기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목표설정의 요소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각 요소들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개인적 속성인 성향, 성별, 신체적 건강상태, 유전적 재능 등은 개인의 진로 흥미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개인적 속성은 가족, 사회, 문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경험을 통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근접 맥락적 요인은 개인이 진로선택의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의 지원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특정분야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개인은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기 어렵다. 결과기대는 행동을 했을 경우 나타나게 될 행동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예측된다면 개인은 그 행동을 실행할 것이고 그 행동 결과가 부정적으로 예측된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행동은 목표에 대한 설정을 통해 추구하게 된다. 개인의 목표는 장기간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2 진로선택

개인은 진로 선택의 측면에서 취업, 창업, 무직 상태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며[5], 수입, 독립성, 위험성, 일에 대한 노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효용이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선택을 한다[6,7]. Gohmann & Fernandez [5]에 따르면 진로선택 당사자는 취업, 창업, 미 취업 중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수입과 비용을 고려하며 진로 선택 시 가질 수 있는 혜택과 이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및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이때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 둔화 시점에서는 취업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취업을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크게 된다.

개인은 효용극대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과 보상을 비교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 기대급여나 지위, 자율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6]. Douglas & Shepherd [7]는 직업선택과 급여, 독립성, 위험, 업무노력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업무노력은 근무시간의 양이나 근무강도로 측정될 수 있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더 많은 업무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효용이 적다고 느꼈다. 또한 직업의 안정성과 독립성 등 근무조건 또한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선택은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내적 요인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 기업가 정신의 함유여부, 창의력, 인구통계학적 특징, 적절한 부를 가진 가정환경 등이다. 조준희와 김찬중 [8]은 개인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의 직업 환경이나 경험을 만족한다면 개인의 창업의도가 낮게 형성되었다[9]. 개인의 부와 인적 자산의 수준이 높거나[10], 교육 수준이 높으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할 확률이 높았다[11]. 이와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고용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창업의도가 낮아질 수도 있었다[12].

창업 선택의 외적 요인으로 취업환경과 정부와 사회, 학교의 지원 등이 연구되었다. 정부정책, 사회경제적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이 취업과 창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13]. 경기 상황도 창업동기에 영향을 준다. 실업률의 증가, 산업경기의 상황에 따라 창업의도가 다르게 형성된다. 경기호황일 때는 기회형 창업이 활성화 되었다[14].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거나 실업률이 높을 때는 생계형 창업이 활성화되었다[15].

2.3 외부 환경 _ 인지된 진로장벽

개인의 외부 환경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 진로선택에 장애를 주는 상황은 진로장벽이라 할 수 있다[16]. 문화예술인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부족은 진로 선택에 장애가 주는 상황이므로 이는 진로장벽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을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들로 정의하며 환경적 진로장벽의 예로 일자리 부족, 입직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16]. 손은령[17]은 개인의 진로 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들에 방해가 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을 진로장벽이라 정의하였다.

인지된 진로 장벽은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환경조건이다. 성 역할 편견과 같이 개인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도 있으나 진로 선택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조건도 있다[3]. Albert & Luzzo[18]는 개인은 외부에 있는 통제 불가능한 확정적 요인이 만들어낸 진로 장벽을 운명으로 간주하여 장벽을 극복하기 보다는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즉 인지된 진로장벽으로 인해 개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진로 목표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rown & Lent [19]도 특정 진로에 흥미가 있고 잘 훈련된 사람이라도 그 직업에 들어가는데 견고한 장벽이 있다고 인지하면 그 진로를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직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인지된 진로에 대한 장벽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이 어려웠었다[20].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 전공자가 진로선택 시 취업선택자와 창업선택자의 진로선택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과 같은 의사결정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선택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취업과 창업의 진로에 대한 선택은 효용극대화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진다. Kolvereid[21]는 경영학도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취업과 창업의 선택요인으로 공통된 11가지의 선택 요인을 조사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개인과 창업을 선택하는 개인이 선택한 요인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요인은 고정된 수입과 안정된 일자리, 수입 증대와 같은 경제적 기회, 일에 대한 통제와 자율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사회적 환경, 근무량, 자아실현, 도전, 업무 프로세스 참여, 책임으로부터의 회피, 진로 발전기회 등이다. 상기의 진로선택요인들은 취업과 창업의 행동의도에 각각 영향을 주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3]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에 대한 선택은 개인 특성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며 진로선택 시점에 맥락적 요인으로 경제적 상황등 외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외부 환경 중 진로선택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인지된 진로 장벽이 된다. 생계형 창업에서는 외부 환경의 압박적 상황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어 창업의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높은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부족등은 사회에 진출하려는 문화예술 전공자들에게 진로 장벽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진로장벽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밝혔듯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취업과 창업의 진로에 대한 선택은 의사결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위험 감수 의지와 기회비용에 대한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취창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9]. 전공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취창업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공과대 남학생이 타 전공의 여학생보다 창업의지가 높았다[22].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한 실패 경험이 많으면 창업보다는 취업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23]. 사회문화적으로 중국에서는 공무원을 선호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창업을 더 선호한다[24].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진로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며, 취업선택자와 창업선택자의 진로선택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런 선택 요인은 전공에 따라, 성별등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화예술 전공자의 진로선택요인은 타 전공과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진로선택요인을 인해 취창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해당 취창업 선택요인에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선택자와 창업선택자의 진로선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에 따라 진로선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문화예술 전공자의 진로선택요인은 무엇이며 가장 우선하는 취창업 선택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문화예술 전공자의 진로선택요인은 취업선택자와 창업선택자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문화예술 전공자의 진로선택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문화예술 전공자의 취창업선택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진로선택요인에 영향을 주는가?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서 문화예술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233부를 통계검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t test와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질의하였으며 SPSS 18.0로 분석하였다.

3.3 측정문항

본 연구의 측정문항은 Kolvereid[21]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28개의 진로선택요인 문항과 외부환경에 대한 3문항 등 총 31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항목으로 고정된 수입 등 안정성(Security), 급여 향상 등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y), 업무에 대한 통제(Authority), 자율성(Autonomy), 사회적 소속감을 나타내는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일에 대한 업무량(Work load), 책임량(Responsibility), 진로선택에 대한 도전(Challenge), 꿈에 대한 자아실현과 발전(Self-realization), 진로개발의 기회(Career)와 노동시장과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Environment)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징

통계검증에 사용된 표본은 총 233명이었으며, 남자가 83명(35.6%)이었으며, 여자가 150명(64.4%)이었다. 233명 중 취업을 선택한 피험자는 164명 (70.4%)이였으며 창업을 선택한 사람은 69명 (29.6%)이었다. 응답자의 전공은 미술 30명, 공예 24명, 음악 25명, 대중음악 11명, 무용 1명, 연극 29명, 영화 1명, 만화76명, 게임 25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47명, 2학년 63명, 3학년 77명, 4학년 46명으로 응답하였다.

4.2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사

본 연구의 설문문항을 측정한 항목들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1>과 같이 총 11항목의 31문항은 7항목으로 감소되었다. 요인적재량은 0.600이상이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값은 0.790이상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Table 1> Factor Analysis

Construct	Loadings	Cronbach's a	Eigen value	Variance (%)
CH1	.861	.924	5.446	17.566
SR1	.824			
CH2	.820			
SR2	.803			
CH3	.793			
CA1	.775			
SR3	.755			
CA2	.610			

AT1	.869	.886	4.455	14.371
AU1	.818			
AT2	.810			
AU2	.706			
AT3	.692			
AU3	.625			
S 2	.867	.889	2.743	8.847
S 1	.850			
S 3	.833			
SE2	.871	.824	2.686	8.666
SE3	.777			
SE1	.751			
EN1	.810	.827	2.536	8.181
EN2	.774			
EN3	.770			
RE1	.829	.908	2.338	7.543
RE2	.819			
EO2	.792	.792	2.008	6.476
EO1	.679			
EO3	.623			

*S: Security/ EO: Economic opportunity/ AU: Authority / AT: Autonomy / SE: Social environment/ WL: Work load/ SR: Self-realization/ RE: Responsibility / CA: Career/ EN: Environment / CH: Challenge

4.3 연구결과

연구문제 1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진로선택요인이 무엇인지, 이중 우선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Table 2>와 같이 일반적인 취업선택요인과 달리 문화예술분야 취업요인은 사회적 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가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이 가장 낮았다. 현재 문화예술분야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창업 선택요인으로는 자율성과 외부환경이 가장 높은 선택요인이었으며 안정성이 가장 낮은 선택요인이었다. 창업을 통해 자유로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자 한 전공자들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예술 전공자들은 진로선택요인에서 취업자와 창업자 모두 외부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외부환경인 고용시장과 산업경기 상황이 문화예술분야 전공자의 진로선택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문제 2에 따라 취업, 창업 선택한 그룹 간 진로선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취업그룹이 창업그룹보다 안정성(취업=3.03, 취업=2.50, t=3.823, p<.001), 사회적 환경(취업=3.66, 창업=3.24, t=2.971, p<.01), 책임량(취업=3.13, 창업=2.74, t=2.695, p<.01)등에 대해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기회(취업=3.54, 창업=3.87, t=-3.056, p<.01), 자율통제(취업=3.48, 창업=4.15, t=-6498, p<.001), 자아발전(취업=3.33, 창업=3.90, t=-4.882, p<.001), 외부환경(취업=3.65, 창업=3.90, t=-2.267, p<.05)에 대해서는 창업그룹이 취업그룹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Table 2> Factor of Career Choice

Rank	Employment		Entrepreneur	
	Factor	Mean	Factor	Mean
1	SE	3.66	AU	4.15
2	EN	3.65	EN	3.90
3	EO	3.54	SR	3.90
4	AU	3.48	EO	3.87
5	SR	3.33	SE	3.24
6	RE	3.13	RE	2.74
7	S	3.03	S	2.50

*S: Security/ EO: Economic opportunity/ AU: Authority & Autonomy / SE: Social environment/ SR: Self-realization, Career & Challenge/ RE: Responsibility / EN: Environment

성별의 차이에 따라 진로선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안정성, 경제적 기회, 자율통제, 책임량, 외부환경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환경(남=3.69, 여= 3.45, t=1.988, p<.05)과 자아발전(남=3.68, 여=3.40, t=2.571, p<.05)에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Interaction

Source	Variable	sum of squares	F	p value
Gender (A)	S	4.867	5.394	.021*
	EO	.214	.380	.538
	AU	.223	.438	.509
	SE	6.313	9.241	.003**
	SR	1.400	2.412	.122
	RE	1.752	1.705	.193
	EN	.041	.071	.791
Career Choice (B)	S	9.668	10.716	.001***
	EO	3.998	7.112	.008**
	AU	18.637	36.565	.000***
	SE	5.198	7.609	.006**
	SR	11.335	19.537	.000***
	RE	5.921	5.762	.017*
	EN	3.077	5.245	.023*
A X B	S	3.156	3.498	.063
	EO	.511	.909	.341
	AU	.248	.486	.487
	SE	4.880	7.143	.008**
	SR	2.536	4.371	.038*
	RE	.752	.731	.393
	EN	.114	.194	.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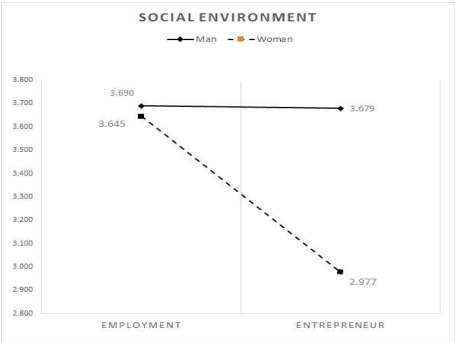
- *p<.05, **p<.01,***p<.001
- S: Security/ EO: Economic opportunity/ AU: Authority & Autonomy / SE: Social environment/ SR: Self-realization, Career & Challenge/ RE: Responsibility / EN: Environment

마지막으로 취창업 선택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3>과 같이 검증결과 다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사회적 환경(F=7.143,p<.01)과 자아발전 (F=4.371, p<.05)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Fig. 1]과 같이 자아발전에 대해서 남자의 취업그룹과 창업그룹 보다 여자 취업그룹과 창업그룹이 좀 더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자인 경우 취업일 때는 남성보다 낮은 자아 발전 인지를 보여주었으나 창업인 경우에는 남성보다 높은 자아발전 욕구를 보여주었다(남성: 취업=3.596, 창업=3.861; 여성: 취업=3.183, 창업=3.922).

[Fig. 1] Interaction Effect (Self- Realization)

또한, [Fig. 2]와 같이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남자는 취업그룹과 창업그룹 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인 경우 취업그룹과 창업그룹이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창업그룹은 취업그룹보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낮았다(남성: 취업=3.690, 창업=3.679; 여성: 취업=3.645, 창업=2.977).



[Fig. 2] Interaction Effect(Social Environment)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직업선택의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 전공자가 진로선택 시 어떤 진로선택요인을 가지는지, 중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취업선택그룹과 창업선택그룹간의 진로선택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과 같은 의사결정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선택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진로선택 요인과 인지된 외부 진로장벽을 진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문화예술 전공자의 진로선택에 따라 해당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문화예술분야 취업선택에는 사회적 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가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이 가장 낮았다. 또한 창업선택으로는 자율성과 외부환경이 가장 높은 선택요인이었으며 안정성이 가장 낮은 선택요인이었다. 이런 결과는 문화예술분야 진로선택 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선택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는 두 선택 모두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성이 취업과 창업선택요인에서 모두 가장 영향이 적은 요인이었다는 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취창업 모두 직업적으로 불안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선택 요인은 취업과 창업 그룹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취업그룹은 사회적 환경, 책임량, 안정성에 대해서, 창업그룹은 경제적 기회, 자율통제, 자아발전,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 상대 그룹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간에도 남성은 사회적 환경과 자아발전 요인에 대해 여성보다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취창업그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사회적환경과 자아발전요인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해 남성은 취창업 그룹 사이에서 차이가 적었으나 여성은 취업그룹이 창업그룹보다 더 높았다. 사회적 환경에 대해 더 고려하는 여성이 취업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이 사회적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취창업의 선택요인으로는 큰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발전 요인에 대해서는 창업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자아발전에 대해 고려하는 여성이 창업

을 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진로선택요인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 취업과 창업에 중요한 선택요인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대학에서 문화예술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상담, 또는 취창업교육을 진행한다면 해당 전공자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개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고려 요인을 규명하여 문화예술 전공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The authors would like to acknowledge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Yewon Arts University.

REFERENCES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March, 2016.

[2] D. B. Greenberger, & D. L. Sexton,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initi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26, No. 3, pp. 1-7, 1998.

[3]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5, No. 1, pp. 79-122, 1994.

[4]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inceton-Hall, 1986.

[5] S. F. Gohmann, & J. M. Fernandez, "Proprietorship and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9, No. 2, pp. 289-309, 2014.

[6] E. J. Douglas, & D. A. Shepherd, "Entrepreneurship as a utility maximizing respons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No. 3, pp. 231-251, 2000.

[7] E. J. Douglas, & D. A. Shepherd, "Self-employment as a career choice: Attitud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utility maximiz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26, No. 3, pp. 81-90, 2002.

[8] Jun-Hee Cho, Chan-Jung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Vol. 18, No. 4, pp. 53-75, 2015.

[9] I. Hatak, R. Harms, & M. Fink, "Age, job identifi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30, No. 1, pp. 38-53, 2015.

[10] P. Aghion, & P. Bolton, "A theory of trickle-down growth and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4, No. 2, pp. 151-172, 1997.

[11] S. A. Shane,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Edward Elgar Publishing, 2003.

[12] J. Gimeno, T. B. Folta, A. C. Cooper, & C. Y. Woo, "Survival of the fittest? Entrepreneurial human capital and the persistence of underperforming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2, No. 4, pp. 750-783, 1997.

[13] D. R. Gnyawali, & D. S. Fogel,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pp. 43-62, 1994.

[14] A. Schoar, "The divide between subsistence and 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 10, No. 1, 57-81, 2010.

[15] R. Abdesselam, J. Bonnet, & P. Renou-Maissant, "Typology of the French regional development: revealing the refugee versus Schumpeter effects in new-firm start-ups". Applied Economics, Vol. 46, No. 28, pp. 3437-3451, 2014.

[16] J. L. Swanson, & M. B. Woitke,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5, No. 4, pp. 443-462, 1997.

[17] Eun-Young Son, "The rol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3, pp.

623-635, 2004.

[18] K. A. Albert, & D. A. Luzzo,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7, No. 4, pp. 431-436, 1999.

[19] S. D. Brown, & R. W. Lent,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4, No. 4, pp. 354-366, 1996.

[20] V. K. Jaensch, A. Hirschi, & P. A. Freund, "Persistent career indecision over time: Links with personality, barriers,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1, pp. 122-133, 2015.

[21] L. Kolvereid,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20, No. 3, pp. 23-32, 1996.

[22] Y. Zhang, G. Duysters, & M. Cloodt,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redictor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10, No. 3, pp. 623-641, 2014.

[23] R. Remeikiene, & G. Startiene, "Does the interaction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unemployment exist?".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14, pp. 903-911, 2015.

[24] O. Giacomin, F. Janssen, M. Pruett, R. S. Shinnar, F. Llopis, & B. Toney,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tivations and barriers: Differences among American, Asian and European student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7, No. 2, pp. 219-238, 2011.

정 재 엽(Jeong, Jae Yeob)

- 2004년 2월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문화예술, 창업
- E-Mail : jyjeong316@gmail.com

최 명 길(Choi, Myeonggil)

- 2004년 9월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 2005년 9월 ~ 2008년 2월: 인제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2008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문화예술, 창업정책, 보안
- E-Mail : mgchoi@cau.ac.kr